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6월 발행 (제 50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예레미야

◎간증 '환란시대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2)' E3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by 예레미야

오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짓밟힌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종말의 날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그 날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짓밟히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1:24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도시>

이방인이나 불신자에게 여부는 막상 알지 못하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예루살렘과 같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사랑 받는 도시로 성경에서 자주 기록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설명입니다.

시편 137: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37: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137: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137:4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르고

137: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찌로다

137: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찌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의 예언>

그런데, 상기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사랑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 또한 이방인에 취 살갓이 트는 날에 관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6:6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흥벽을 쌓으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학한 것 뿐이니라

6:7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발하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6:8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6: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갱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6: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6:11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6:1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6:13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곳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적에게 망루 구축을 명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을 예루살렘이 적에게 공격 망루가 구축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여기에 작성하고, "이것은 처벌 마을 그 중에는 탄압만이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마을 예루살렘은 그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러므로 적을 공격하도록 할 수 적혀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 밧아 망 쳐진 날>

실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짓밟히는 날은 구약의 역사에서 실제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36:14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36:15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36:16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36:17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36:18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36:19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이날 즉 다윗 왕조의 말기에 예루살렘은 이방인 인 바벨론 (바빌로니아)의 왕 석권되고 도시는 이방인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픈 일이 하나님의 사랑 마을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이유는 성경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비아냥거리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예언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그 백성에게 쏟아 더 이상 치유 될 수 없을 때까지 됐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이방인인 갈대아(바벨론)에 의해 밧아 망 쳐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 마을에 불을 붙이고 이 거룩한 도시가 이방인 밧아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짓밟힌다"라는 것은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 특별히 사랑한 도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짓밟히는 것은 결코 우연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2. 비록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을에서 있어도 그 배교가 참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조롱하는 등 구원 어려운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타 올라 마을은 적을 의해 멸망 이방인 짓밟힌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짓밟히는 날>

주님은 예루살렘이 다시 적을 통해 공격 이방인으로 짓밟혀 도배되는 날이 도래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19: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19: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19: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예언은 성취 예루살렘은 서기 70 년에 로마에 의해 공격되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이방인 인 로마 군에 의해 점령 된 이방인 짓밟혀졌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인 유대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도성 인 예루살렘에 대하여 허용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상기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배교 때문에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23: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루살렘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십자가에 붙이는 모독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이 마을에 내려와 이 마을은 이방인 밧아 망쳐 그 주민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움, 잘 중재를 내린다 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잘 심판을 내리고 그 사랑 마을도 불의와 배교로 떨어질 경우, 심판이 내려지는 그 것을 우리는 이러한 설명 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이 이방인 밧아 망쳐지기의 의미는?>

이제 주 종말의 날, 교회 시대의 끝에도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위의 이해가 필수입니다. 즉 교회 시대의 끝에 일어날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유린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종말의 날과 교회 시대의 끝이고, 그 날은 또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배도로 말미암아 심판 일이다라는 기본 같은 일입니다. 옛 날 구약 시대의 끝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배교 때문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유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마지막 교회 시대의 끝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가 정점에 도달 한 그 날에 예루살렘은 이방인 밧아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끝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배교 따라서 심판 신약의 끝에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배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루살렘의 의미>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의 이름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로 비유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의 비유를 이해합시다. 다음 설명은 그 비유 이해를 도와 줄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21: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21:14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 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여기에는 그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써 있었다."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단순한 마을 이름, 도시 이름보다는 십이 사도를 바탕으로 한 신약의 교회를 바르다 예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십이 사도의 필두 제자 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12 사도의 필두 제자 인 베드로에 대해 자신의 토대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위 종말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기록 된 12 사도의 이름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기록 된 12 사도를 기초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은 즉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비유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 시대의 끝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예언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1:24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요한계시록 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므로 신약의 빛 속에서 이해한다면, 예루살렘은 단순히 한 도시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를 토대로 한 교회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짓밟히게 됩니다."라는 말은 이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을 가리키는 예언임을 이해하자.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는 것, 그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가 이방인들에게 유린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약의 의미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 즉 불신자 의해 유린된다 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말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붙이고 결과,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 이방인 불신자 석권되게 된다. 그 결과 교회의 목사 임명 교회의 교리, 정책, 신념, 이러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제정되는 그 날이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의해 교회가 석권하고 목사가 임명되고 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몽 같은 일에 대해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짓밟힌다고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결과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등이라고 믿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이슬람교도, 불교에도 구원이 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교리도 구부려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 즉 동성애도 불륜도 OK 라고하는 가르침 두꺼비 빌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은 황당무계 한 상상이

아니라 그날 즉 교회가 배도에 빠져 죄가 교회에 만연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편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교회에 배도가 발생할 수 결과 불법 (죄) 사람이 나타나 교회에 죄가 만연 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방인 불신자 짓밟힌다는 설명과 부합합니다. 또한 다음 계시록의 묘사는 그 이방인 불신자가 교회를 석권하는 일을 비유로 말씀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3: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3: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와 같이 성경의 각 계정은 교회 시대의 끝, 즉 교회의 배교가 채우는 일에 교회가 이방인, 즉 불신자 짓밟히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대비해 잘 종말의 날에 필요한 준비를 합시다.

- 이상 -



예루살렘의 붕괴

지난 삼 개월도 예수님이 환란에 대해 이런 일을 말하고 있는지, 라고 생각을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그 때는 옅기 통해 "감정 사색에 승리하여 영생을 얻고 갑시다!"라고 하는 바람에 얘기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어스런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최근 제자 훈련 모임에서 가르쳐 주신 일에 대해 이야기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환란 시대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취급되고 체포되고 심문되거나 투옥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 버리는 것인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조금 살펴 보자.

참조 마태복음 27: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참조 누가복음 22: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이사야 53:12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상기 마태 복음에 "명패"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의 머리 위에' 내걸린 것에 있다는 것처럼 예수께서는"죄인"으로 간주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반복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님이, 게다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무려! "죄인"을 부르짖기도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가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는 곱혔다"라고 써있는 이 것이 내가 반드시 실현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는 곱혔다"라고 써 있는 이 수'라고 합니다 같이, 이 것은 미리 예언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밑줄 친 부분 "어긴 사람들과 함께 곱혔다"이 바로 그 것을 말합니다. 덧붙여서, "배반한 사람들"의 점은 KJV 인 셈이라고 하면 "transgressors"답게, 이것은 누가 복음에 기록 된 "죄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 복음에 기록된 대로, 확실히 이것, 즉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곱히는 것은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것을 조금 되돌아 봅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첫 강림되어 30 세가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3 년 반의 공생애로 불리는 기간입니다. 그 3 년 반 기간은 언제였는가? 라고 말하면 구약 시대의 끝 (말)의 때입니다.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쩔 수없이 타락하고 있던 때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에서 맞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구약 시대의 막내 환란 때와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전부터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끝에도 예수님의 첫 강림 때 일어난 일이 재현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 복음 24 장에 그것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24 장의 시작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이나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대해 질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때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었던 것 같은, 또 앞으로도 없을 그런 끔찍한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3 년 반 환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되는 던가 교리는 잘못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반 환난 시대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것인가?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메인입니다만, 처음에 얘기했듯이, 또한 성경에 **"사람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겨"**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라고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같이 환난 시대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전달되거나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혹은 사형 결정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될까? 는 것이 최근 참조 말씀 팁과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처리 된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된다!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일단 구약 시대의 환난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컬트 처리를 한 것처럼 신약 시대의 환란도 아마 유사한 흐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말씀에 잘 붙는 그리스도인 것을 "컬트"라고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일본에서는 그런 풍조는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예수는 실은 가짜였다」라든가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같은 움직임이 발생되어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법률을 범자로서 체포, 혹은 사형에 처한다 던가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거나 예수님 이야말로 진리가 있다, 라고 공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죄인" "범인"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벌써 말씀에 굳게 세운다 기독교인이 박해되거나 체포되거나 투옥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노방 전도를 하고 있던 목사가 체포되거나 동성애 것을 지적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벌금까지 부과 된, 쓰레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모든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듣고, 일본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바람에 말씀 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만, **"전세계에 오려고 하는 시련의 때"**라는 것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든 늦든 이런 시간이 일본에도 올 것이고, 곧 전 세계에 걸쳐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만약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걷는 사람, 그리고 비록 법률이 바뀐다 해도 지금처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만 구원이 있다는 믿음의 행보에 앞으로도 철저 가는 경우,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체로 예수님과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은 투옥되거나 체포되기도 했고, 그들 중 순교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딴후 편지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만,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지금 부어 제물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이미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붓는 제물'은 '순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가정 내 생각 두는 편이 좋은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다면 막상 그런 때가 와도 당황하는 것도 없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란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은 **"당신이 내 인내심에 대해 한 말을 지켰다 때문에, 나도 땅에 사는 자들을 시도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오려고 하는 시련의 때, 당신을 지키자."** 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호와 도움도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마터면 체포와 투옥과 순교가 허용 되더라도 하지만, 제대로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늘 나라"에 넣어 줄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기독교인을 박해하거나 의회에 전달하거나 고소하거나 사형 결정하는 사람은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것이니까"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몰라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통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도 시야에 넣고 걸음을 하는 편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유비무환'라고 하는 속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 되시면 꼭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영생을 얻어갑시다!

이번도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 이상 -